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의 융합 사례 발표



-저작권 안내-

태안고등학교 교사 김민기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25. 4. 23.에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직무 연수한 자료이므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 카피킬러 표절검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립니다.

1

1단계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고민하다

2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사의 고민



3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사의 고민



4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사의 고민



5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 선택권 부여

- 참여적이고 의욕이 높은 학생들
- 사서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
- 3월 첫 수업부터 시작된 모듬 수업
- 아직 관심사나 희망 진로에 따라 책을 선정하기 어려움



- 모듬 구성원들이 토의하여,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을 선정
- 두 달동안 깊이 있게 읽고, '본질적 질문' 도출
- 책의 내용을 확장하며,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기

6

한 학기 한 권 읽기

안내 내용

공지사항 >

2025 1학기 공통국어1 두 번째 프로젝트 [복라디오] 안내

 **프로젝트 팀장 카메니저**  조회 1,038

댓글 0 URL 복사

1. 활동의 성격: 한 학기 한 권 읽기 융합 활동
2. 평가 방법: 모둠 산출물 평가, 개별 활동 역할 및 소감 평가 *수행평가 아님

단계	주요 활동	설명
1단계	책 선정하기	모둠원들과 협의하여, 한 권의 책을 골라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출합니다.
2단계	깊이 읽고 확장하기	모두가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읽고, 자신의 관심사, 진로 분야의 사회적 이슈와 연결하여 감상을 확장합니다.



7

한 학기 한 권 읽기

본질적 질문

-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는 죄책감과 허무 속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견디며 살아간다.
- 복분자액이 터져 남긴 검붉은 얼룩은 아이의 부재를 시각화한 상흔으로, 집안 곳곳에 상실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퍼뜨린다.
- 이웃과 지역사회는 처음에 위로해 이 나고 “거대한 불행에 가여워까” 드러워 브브를 피하고 스구거리며 꽃으로 채찍질하듯 “이제 타인의 고통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자정 무렵 아내가 벽지를 새로 바르자 제안하자, 부부는 얼룩을 가리기 위한 ‘셀프 도배’를 시작한다.
- 도배를 하던 중, 벽 아래서 아이가 쓰다 만 이름을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 눌러왔던 슬픔이 폭발한다.
-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나’는 벌을 서듯이 벽지를 잡고 멍하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라는 말을 반복한다.

- 김애란, 「입동」 (『바깥은 여름』 중)

8

한 학기 한 권 읽기

본질적 질문

타인의 고통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이의 죽음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아내가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 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라는 비유적인 묘사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한 것일까?

‘나’와 ‘아내’가 이웃들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피부 밖의 아픔에 과연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가?

토의

9

2단계

정보 교과와 함께하다

10

정보 교과와 함께하다

교사 간 협의



11

정보 교과와 함께하다

교사 간 협의



12

정보 교과와 함께하다

교사 간 협의

■ [공통국어1] 성취기준 (6) 매체

→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매체 수용과 제작 활동을 설계할 때는 국어과의 타 영역 성취기준, 타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하고 ...
- 매체 자료 제작하기를 지도할 때는 학습자 간 매체 활용 능력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교사의 설명, 안내 영상 제공, 학습자 간 동료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체 활용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모든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3

정보 교과와 함께하다

융합 수업 전개



14

3단계

복라디오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15

복라디오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안내 내용

단계	주요 활동	설명
3단계	복라디오 촬영하기	▲ 두 개 이상의 촬영 시점(view point) 동영상 촬영합니다. ▲ 발언권을 잡은 사람이 계속하여 말하고, 단순히 돌아가며 발언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발표식 영상을 구성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문답이 오고가는 대화의 형태로 영상을 구성하세요. ▲ 학생들은 책 이외에는 어떠한 대본, 참고물도 볼 수 없습니다. 책에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하여 보면서 읽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때 남은 스마트폰으로, 촬영 모든 과정을 녹음합니다. ▲ 녹음은 일시 중지 없이 원테이크로 진행합니다. ▲ 녹음 파일을 선생님께 카카오톡(아이디: vipmink, 파일명: 모동명) 제출합니다. △ 자유로운 대화이므로 반말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재치와 유머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 동영상은 NG가 날 경우 재촬영할 수 있고 편집 과정을 통해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은 NG, 지시, 싸움 등 모든 과정이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에 걸쳐서 촬영한다면, 이들에 걸친 녹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복라디오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학생 활동



17

복라디오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왜 함께일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간에 말을 더듬어 진행이 방해되는 것 같았는데 모둠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주고,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을 보며 나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고 또 다른 의미로 감사했다. 또한 프로젝트를 끝마친 후, 나는 누가 실수를 하거나 진행이 느려도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을

읽는 것에 대해 소량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현기증이 쉽게 나서 책을 읽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친구들과 토론과 생각을 공유하며 조금 더 책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었고,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한 가지의 주제에 여러 가지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깊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내가 만약 그 책에 있다면 무슨 역할을 할까'라는 질문에서 나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깊게 해본거 같아 기억에 잘 남았다. 한 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의견도 나눠보면서 깊게 생각해본게 오랜만이라 반가웠고 내가 생각했던거 외에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이 책에 여러 면을 생각할 수 있어 더 뜻깊은 생기부 활동이 아니었나 싶다. 너무 좋아서 그런지 다른 책으로도 독서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다고 생각했고 한가지 관점으로 책을 바라볼게 아니라 여러 관점으로 책을 바라봐야겠다 라고도 생각하였다.

18

4단계

복라디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다

19

복라디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다

어떻게 평가할까?

- 영상 녹화 시 다른 핸드폰으로 음성 녹음하도록 지시
- 정보 교과에서 네이버 클로바노트 활용법 교육, 학생들이 음성 녹음 → 텍스트로 AI 활용 전사(옮겨쓰기) 체험
 - 모듈별로 녹음을 다시 들으며 클로바노트가 참가자를 잘 분류했는지 확인
 - 참가자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 이름 입력
 - 클로바노트가 단어를 잘못 전사한 것들을 찾아 고치기
- 수정을 완료하면 학생들이 클로바노트에서 텍스트 파일로 다운받아, 네이버 카페에 올리기

20

북라디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다

어떻게 평가할까?

김아현 00:35

나 원래 이런 근대사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런 광주나 다니시는 걸 좋아해서 택시 운전사랑 이런 근대사 영화도 많이 접했거든. 근대 그걸 책으로 읽으니까 좀 더 글에서 느껴지는 잔인함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김현우 00:58

방금 영화 얘기에 있는데 내 진로가 영화 감독이라 가지고 생각을 내가 좀 열심히 해봤거든.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는 사람이잖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그 사건에 대한 흔적과 이런 걸 남기는 게 영화 감독의 책무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후대에 남김으로써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경각심도 줄 수 있고 그게 그래서 영화 감독이나 이런 창작자들의 책임인 것 같아.

김아현 01:44

멋있다.

전승민 01:48

약간 나도 원래 책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고 이런 사건 같은 거 다 영화로 접했는데 이번에 글로 읽으니까 약간 살인과 폭력에 대한 묘사 속에서 당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더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서술자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21

북라디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다

어떻게 평가할까?



1학년 1반 호니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 문서

지금 업로드하는 텍스트 파일은 6명의 학생들이 책 <소년이 온다>를 읽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를 핵심 질문으로 선정하여, 핵심 질문에 도달하기 위한 논의를 자유로운 대화 형태로 풀어낸 북라디오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것이다. 이 파일을 읽고, '김아현' 학생의 발화만을 다음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다음 기준에 따라 내가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잘 정리해 줘.

가. 학생이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여 깊이 있고 다각적인 독서 활동을 하였는가?

나.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하여 책의 주제나 내용을 확장하였는가?

다. 학생이 자기 관점을 명확히 표현하며, 텍스트에 근거하여 타당한 주장을 펼쳤는가?

22

복라디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다

어떻게 평가할까?

✅ 가.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여 깊이 있고 다각적인 독서 활동을 하였는가?

① 사회·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독서에 반영함

- “나는 원래 이런 근대사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이 광주나 다니시는 걸 좋아해서 택시 운전사랑 이런 근대사 영화도 많이 접했거든. 근데 그걸 책으로 읽으니까 좀 더 글에서 느껴지는 잔인함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 개인적 경험(가족의 관심사, 영화 감상)을 통해 책의 시대적 배경인 5·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고, 시청각 매체와 텍스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다매체 간 비교적 독서 경험**을 수행함.

② 문학적 장치에 대한 감수성과 재해석

- “맨 앞에 너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뭐가 진짜 나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독자들이 좀 집중하게 만든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 ‘2인칭 시점’이라는 서술 기법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독자의 몰입이라는 효과와 연결지어 **문학적 기법과 독서 반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③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경계에 대한 인식

- “이 세세한 내용은 허구일 수 있겠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건 맞고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 이잖아. 그래서 좀 진부한 말일 수도 있는데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다들 하잖아.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의 구분을 하면서도, **문학이 전달하는 역사적 경각심의 역할**을 긍정하며, 현실 문제 인식과 연결함.

✓ **종합 판단**: 김아현 학생은 개인적 경험, 영상 매체, 역사적 맥락, 문학적 장치 등 다양한 층위에서 책을 해석하고 수용함. 이는 매우 다각적인 독서 태도로 평가 가능.

23

복라디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다

어떻게 평가

✅ 나.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와 관련하여 책의 주제나 내용을 확장하였는가?

✎ 해당 기준에 직접 대응하는 ‘진로 관련 발언’은 없으나, 관심사 기반 확장은 일부 존재함.

①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드러냄

- “진부한 말일 수도 있는데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다들 하잖아... 작년도도 경험이 있긴 했고 모두가 무서워했으니까.”
→ ‘작년 경험’을 언급한 문맥은 명확하지 않지만, 계엄령과 같은 현실적 정치적 위기 상황을 떠올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역사적 반복의 가능성과 현재를 잇는 사고**를 드러냄.

② 현대적 맥락에서의 자기 역할 상상

- “나는 솔직히 책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슨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무서움이 제일 될 것 같아.”
→ 소설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두고 현실의 자기 역할을 가늠해 봄. 이는 **비판적 자기 성찰을 통해 현실 확장적 상상력을 발휘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종합 판단**: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발언은 없으나, 책의 주제를 개인적 정체성과 연결하며 현실의 자신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관심 기반의 주제 확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

24

북라디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다

어떻게 평가할까?

✓ 다. 자기 관점을 명확히 표현하며, 텍스트에 근거하여 타당한 주장을 펼쳤는가?

① 자기 관점의 분명한 표현

- “나는 무서움이 제일 클 것 같아.”
→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해 자기의 한계와 현실적인 반응을 토대로 발언함. 이상적 영웅주의보다 현실적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직한 태도.

② 근거 기반 주장 제시

- “그래도 이 세세한 내용은 허구일 수 있겠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건 맞고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잖아... 이런 책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 소설의 ‘부분적 허구’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5.18 민주화 운동의 사실성을 근거로 하여 ‘기억의 의미’에 대해 텍스트 기반의 논리적 주장을 전개함.

③ 타인의 주장에 대한 수용과 비판적 응답

- “작년에도 경험이 있긴 했고 모두가 무서워했으니까.”
→ 앞서 김주영 학생이 작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이후, 역사 반복과 무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어받으며 대화 속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유지함.

✓ 종합 판단: 김아현 학생은 텍스트를 단순히 인상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사실과 허구의 구분, 현실적 자기 태도의 정직한 진술, 근거 제시를 통한 주장 강화 등에서 뛰어난 표현 능력을 보임.

북라디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다

어떻게 평가할까?

★ 정리 요약표

평가 기준	평가 내용	주요 근거 발언	평가 수준	📄
가. 다양한 맥락의 활용	영상-텍스트 비교, 2인칭 시점 인식, 역사-현재 연결	“책으로 읽으니까 더 충격”, “진짜 나 얘기하는 것 같아”, “역사를 알아야 한다”	매우 우수	
나. 진로나 관심사와의 연결	직접적 진로 언급 없음, 현실적 공감과 상상 통한 확장	“작년에도 경험이 있었고...”, “나는 무서움이 제일 클 것 같아”	일부 확장 (보통 이상)	
다. 자기 관점 및 주장	허구와 사실 구분, 경각심 강조, 현실적 자기 위치 반영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 “나는 무서움이 제일 클 것 같아”	매우 우수	

북라디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다

생기부 기재 어떻게?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맥락을 파악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타인의 관점까지 조망하려는 태도가 돋보임. 모듬 구성원과 함께 '소년이 온다(한강)'를 선정하여 끝까지 읽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생성하여 토의하는 북라디오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함. 작품의 서술 시점, 인물 관점의 전환 등에 주목하며 문학적 장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역사적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현재적 맥락 속에서 숙고한 점이 인상 깊음. 특히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경계하며, 소설이 제공하는 정서적 체험과 사실 인식의 경계를 분별하는 태도를 보여 문학을 현실과 연결하는 성숙한 독서 능력을 발휘함. 더불어 작품의 중심 문제에 대해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타인의 의견에도 적극 반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임.

27

5단계

북라디오 프로젝트 다음엔 - 의사소통 점검 조정

28

의사소통 점검 조정

- 공동체의 담과 관습 성찰하기를 지도할 때는 고전이나 속담, 각종 매체 자료, 자신이 직접 참여한 담화의 전사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공동체의 담과 관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두루 분석하여 개인의 구어 의사소통 습관 및 공동체의 담과 관습을 개선하는 방안도 탐색하도록 한다.

- 2 -

북라디오 프로젝트 다음엔 - 의사소통 점검 조정

생기부 기재 어떻게?

- 놀랍게도 이번 학기 공통국어1 세특입니다.
- 이번 학기에는 문학, 매체, 의사소통을 적고 다음 학기에는 독서, 작문, 문법을 적으려고요.
- 북라디오 활동은 자율-자치에 들어갔어요. 1학년 전교생의 자율-자치 일부를 제가 쓸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ㄸ

서정 작품이 서사 속에서 기능하는 방식을 학습한 후, 이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탐구하려는 지적 호기심을 보임. 수업에서 배운 서정시 분석 방법을 대중가요에 적용하여, 노래 가사에 담긴 정서와 서사를 시각화하는 뮤직비디오 제작 활동으로 탐구를 확장함. 모듬 토의로 'To. X(태연)'를 선정하여, 관계 속에서 자아를 잃어가는 화자의 혼란과 고통,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해방에 이르는 과정을 핵심 서사로 설정함. 특히, 심리적 억압을 하이 앵글 구도로, 과거 회상 장면을 정면 구도로 표현하는 등 카메라의 시점과 구도를 활용하여 화자의 복합적인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연출하는 능력을 보여줌. 작품을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 언어의 힘을 깨달은 후, 자신의 일상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성찰로 탐구를 심화함.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고 인공지능으로 전사한 뒤, 수업에서 배운 의사소통의 원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함. 말이 빠르며 상대의 이해를 점검하지 못했던 개선점을 인식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강점을 살려 이를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임. 활동에서 얻은 깨달음을 다음 탐구의 동력으로 삼고, 표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뤄나가는 점이 인상적임.